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이 지 은*

강 민 성**

이 승 종***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위험인식과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의 「2012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서울시민의 도시위험인식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위험인식 유형인 1) 자연적 위험, 2) 사회적 위험, 3) 기술적 위험인식이 높아질수록 서울시민의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기술적 위험이 가장 컸으며, 사회적 위험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험'이라는 행복하향요인(de-motivator)의 분석을 통해 정부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도시위험, 안전, 행복

I. 서론

행복은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이자 척도라는 전제하에(Layard, 2005), 많은 학자들이 행복 요인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정치경제,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환경 요인, 심리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논의에 포함되어왔다. 이처럼 다양한 행복 요인 중에서 본 논문은 안전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안전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국내외 대다수의 행복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Trewin, 2001; Frey & Stutzer 2002; Bakshi, 2004; D'Acci, 2007; Bok, 2010; 김명소 외, 2003; 이성규, 2006; 송건섭 외, 2008; 황명진·심수진, 2008; 김승권 외, 2008; 조성호 외, 2009; 강창민, 2010; 최말옥·문유석, 2011).

* 제1저자

** 제2저자

*** 교신저자

안전과 위험인식에 대해 독일의 사회학자 Beck은 위험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근대화가 초래한 딜레마이며, 발전이 성공적일수록 위험요소도 더 강력해진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위험이 예외적 사례가 아닌 일상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Beck, 1992). 또한 Beck(2006)은 근대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환경보호운동, 웰빙열풍, 보험제도 등이 일반적 사회현상이 된 이유는 현대사회에는 위험인식이 상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2008년 한국을 방문한 Beck은 모 일간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아주 특별히 위험한 사회’라고 언급하며(정진성 외, 2010)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Maslow(1954)의 욕구위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에 따르면 안전은 생리적 욕구의 층급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서, 안전·안정의 욕구는 개인적 안정, 재정적 안정, 건강과 안녕, 사고와 병으로부터의 안전망을 포괄한다. 안전에 관한 Beck과 Maslow의 견해를 종합하면, ‘위험(risk)은 인류사회에 편만한(pervasive) 사회현상¹⁾’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²⁾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안전관리의 책임주체로 명시하고 있듯이, 국민은 정부에게 재난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³⁾. 지속적인 분권과 참여에 대한 요청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오늘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 집행⁴⁾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정부는 민주발전, 지역균형발전, 주민복지증진을 추구하며(김학로, 1994; 한원택, 1995; 김종표, 1991; 이승중, 2002),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citizen well-being; community well-being)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승중, 2005). 여기서 주민 복리는 주민의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 혹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의 연구경향에 비추어보면 곧 행복(happiness)이라 볼 수 있다⁵⁾.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주택, 의료, 보건,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교육, 방재 등 주민과 밀접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안전은 복리 및 행복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안전하지 못한 환경은 지역주민의 태도와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주민복리 및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는 안전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도시위험은 인류사회에 만연한 사회현상으로서 위험은 주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이는 위험을 발생가능성과 확률추정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로 보기보다는, 개개인의 인지능력에 의해 인식차가 발생하는 주관적 사실로 봐야 한다는 ‘위험 주관주의’(Douglas & Wildavsky, 1982)와도 일치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동아일보」. (2014. 04. 25). [사설] 세월호 참사에 청와대는 책임 없단 말인가. 27면 50판.
「경향신문」. (2014. 04. 25). [사설] 청와대는 언제까지 책임 회피만 할 텐가. 31면 20판.
- 4) 여기서는 정책결정을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취하는 의사결정’으로 국한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란 지방정부가 당해 지방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이승중, 2005).
- 5) 삶의 질(quality of life), 안녕(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는 학자에 따라 분류방식이 매우 다르지만, 상호 밀접하며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행복(happiness)에 주목하기로 한다.

더불어 지방정부는 주민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정책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이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연구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⁶⁾ 이 같은 현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행복 연구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위험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도시위험인식이 주민 행복감(happiness)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시민이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위험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본 연구는 「201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주민의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행복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행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Diener, 1984; 1994; Diener, Sandvik, and Pavot, 2009; 최말옥·문유석, 2011). Diener(1984)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며 행복에 관한 측정을 본격화했다. Veenhoven (1991)은 행복을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념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전반적 개념에는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 만족감(contentment), 쾌락수준(hedonic level)이, 세부적 개념에는 직무만족(job-satisfaction), 자기존중감(self-esteem), 신념의 통제(control belief)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Veenhoven(1993: 17)은 후일의 연구에서 전반적 행복(overall happiness)을 ‘평생에 걸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긍정적 평가의 정도’⁷⁾라고 정의했다. 한편, Layard(2005)는 행복을 ‘인간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달리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자명한 선(self-evidently good)’이라고 정의하였으며, Frey와 Stutzer(2002) 또한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은 행복의 개념이 주관적·객관적인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측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주관적 행복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Frey & Stutzer, 2002: 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정의한 행복의 개념을 종합하여 행복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함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Bradburn, 1969; Mcdowell & Newell, 1987; Veenhoven, 1991; 1993).

6) 한국 행정학분야에서의 최초의 위기관리에 관한 논문은 김형렬(1987)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그 역사가 약 30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후 2007년까지 발표된 행정학 분야의 안전관련 논문은 142편에 불과하며, 내용을 살펴보면 단일 사례 및 현황분석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재은, 2009).

7) Overall Happiness: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judges the overall quality of his own life as-a-whole favorably (Veenhoven, 1993: 17).

2) 행복의 영향요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Diener와 Seligman(2004)은 정치경제체제, 소득, 노동,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의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Layard(2005)는 가족관계, 재정상황, 일,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 건강, 개인적 자유, 개인적 가치의 행복의 7대 요인(big seven)을 제시하였고, Frey와 Stutzer(2002)는 행복 영역을 나이·성별·교육수준·건강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실업률·인플레이션·성장률 등 경제적 변수,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등 제도적 변수, 테러리즘·내전·부패 등의 공공재, 환경적인 쾌적성(amenity)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측면에 주목하여 Diener 외(1999)는 상향적 요소(외부영향, 환경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와 하향적 요소(주관적 성향, 성격, 선천적 성향, 인지적 특성)로, Veenhoven(2000)은 외부조건(환경, 물질적 변형, 평화, 자유 등의 객관적 요건)과 내적과정(주관적 심리상태, 쾌락수준, 평안함 정도)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최말옥·문유석(2011)은 성별, 나이, 교육, 종교, 결혼, 자녀 수, 직업, 주택형태, 소득, 거주기간 등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낙관주의, 우울을 심리적 요인으로, 경제·교육·교통·문화·보건·복지·치안·주거·행정·자연·도시 환경 등을 지역생활여건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학자마다 행복의 영향요인을 7가지, 6가지, 3가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Diener와 Seligman(2004)의 소득, 노동, 신체적 건강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정치경제체제 및 사회적 관계는 환경 요인으로, 정신적 건강은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Layard(2005)의 분류의 경우 가족관계, 재정상황, 일, 건강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개인적 자유, 개인적 가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는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Frey와 Stutzer(2002)가 분류한 경제적 변수, 제도적 변수, 공공재는 환경 요인으로 볼 수 있어 행복 영향요인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된다. Diener 외(1999)의 상향적 요소는 환경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하향적 요소는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Veenhoven(2000)의 외부조건은 환경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내적과정은 심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말옥·문유석(2011)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지역생활여건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복감의 영향요인을 크게 1) 지역환경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역환경 요인과 행복

안산시 지역주민의 행복결정요인을 다룬 김상곤·김성중(2008)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요인을 복지, 안전, 생활환경, 공동체 등으로 구분하고, 복지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송건섭(2011)은 주관적 행복으로 정의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여건(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사회, 경제, 환경 여건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여건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말옥·문유석(2011)은 부산시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생활여건 요인으로서 자연환경·도시환경·교통·치안·교육·문화·의료·복지·경제·행정·주거만족도를 제시한 후 교육만족과 경제만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역환경 요인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노인의 삶의 질에 지역사회환경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Ranzijn, 2002; Bowling, 2003, 김미령, 2006; 배나래·박충선,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지역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세원 외, 2012; 성은모·김근희, 2013) 등이 있다.

(2) 심리적 요인과 행복

인구학적인 변인이나 경험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상향(bottom-up)이론과 달리 하향(top-down)이론은 개인이 심리적·내적 측면으로부터 행복을 느낀다는 측면을 강조한다(구재선·김의철, 2006: 1). 하향이론의 관점에서 심리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첫째, 낙관적 사고와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Inglehart 외(2008)는 선택의 자유(free choice)⁸⁾가 주관적 웰빙(SWB)의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주장하였다. Cheng과 Furnham(2003)은 청소년의 우울감은 행복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Ciarrochi 외(2007)는 희망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하였다. 둘째, 주관적 계층인식은 객관적 계급과는 유사하면 서도 다른 개념으로(Giddens, 1972, Jackman & Jackman, 1985; Bourdieu, 1986), 주관적 계층인식차이는 개인의 태도와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객관적 계급과는 별개로 중간층으로의 귀속의식(middle stratum identification)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병조, 2000), Oshio 외(2011)는 중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한 결과 계층의식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셋째, 이념성향 측면에서 Alesina 외(2004)는 유럽의 빈곤층 중 좌파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불행하다고 인식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DiTella와 MacCulloch(2005)는 급진적·좌파적 성향을 갖는 사람은 실업으로,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는 사람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행복이 감소한다고 밝혀 이념성향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Frey & Stutzer, 2010 재인용).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행복의 관계를 다룬 Wassmer(2009)의 연구에서는 이념성향 집단(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에 따라 공공안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넷째, 사회자본과 행복의 측면에서 Myers와 Diener(1995)는 행복이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도 형성된다고 주장했으며, 사회자본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Helliwell(2001), Helliwell과 Putnam(2004), Kuroki(2011)는 신뢰, 사회적 관계, 호혜성 등의 사회자본은 주관적 웰빙 및 행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3)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행복

성별과 행복에 관해 기존연구들은 여성이 더 행복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Inglehart, 1990; White, 1992; Oswald, 1997; Hellevik, 2003), 성별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고 주장한 초기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Andrew & Withey, 1976; Campbell, 1976). 연령과 행복에 관해, 연령과 행복의 관계가 U자 형태라는 연구(Frijters & Beaton, 2012; Gerdtham & Johannesson, 2001; Blanchflower & Oswald, 2004)와 연령과 행복이 음(-)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

8) free choice: 선택이 자유, 즉 '노력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

(Cantril, 1965), 정(+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Bradburn, 1969; Campbell, 1976), 역 U자형 관계에 있다는 연구(Hellevik, 2003; 大竹文雄, 2010)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수준과 행복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Oswald, 1997; Clark & Oswald, 1996; Gerdtham & Johannesson, 2001; Helliwell & Putnam, 2004; Ball & Chernova, 2008). 최근에는 교육수준이 매개변수를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Clark과 Oswald(1994)는 고학력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mental stress)를 견디는 능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Helliwell와 Putnam(2004)은 교육이 건강 등 행복에 미치는 다른 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과 행복이 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한편, 직업 측면에서 직업과 행복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Campbell, 1976; Inglehart, 1990; Binder & Coad, 2013). 특히, Binder와 Coad(2013)는 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의 순으로 행복도가 낮아짐을 밝혔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득증가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Clark et al, 2008; Powdthavee, 2010), 소득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며 일정수준까지는 다른 요인들보다 행복에 강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Easterlin, 1974; Diener, Diener & Diener, 1995; Myers & Diener, 1995; Diener & Biswas-Diener, 2002; Hagerty & Veenhoven, 2003; Hellevik, 2003; Ball & Chernova, 2008).

결혼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기혼자가 독신·이혼·사별·별거중인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밝히고 있다(Diener et al., 2000; Kahneman et al., 2006; Diener & Biswas-Diener, 2008; Eid & Larsen, 2008). 특히 Diener 외(2000)는 42개국의 국가비교를 통해 결혼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주거지역과 행복의 관계에 관해, Hellevik(2003)은 도시와 농촌지역, 혹은 광역구역 간에는 행복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大竹文雄(2010)은 킨키(近畿)、칸토우(関東)、큐슈(九州)지역은 행복도가 높은 반면, 그 외의 지역은 행복도가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Hellevik(2003)과는 달리 거주 지역에 따라 주민의 행복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Wilson과 Baldassare(1996: 30)는 대규모 밀집 도시지역의 거주자가 사회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종교측면에서 종교는 인간의 태도에 크든 작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이승중, 2010: 104), 기존연구는 종교생활 영위자가 미영위자보다 행복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Moberg & Taves, 1965; Inglehart, 1990; Argyle, 2003).

2. 도시위험인식과 행복

1) 도시위험인식의 의의

위험은 Giddens, Beck 등 서구의 사회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Giddens(1991)는 ‘위험(risk)’을 근대사회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로 제시하면서, 복지국가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위험을 방치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eck(1992)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진단하고,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

고 하며 위험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즉, 빈곤과 달리 스모그로 대표된 현대사회의 위험은 인종·계급·종교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위험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우며, 피해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위험발생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위험유형에 대해 Zimmerman(1985)은 위험을 자연적 위험(natural hazards)과 기술적 위험(man-made technological hazards)으로 분류하였다. Zimmerman의 연구 이후 특히 기술적 위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됐다(Wildavsky, 1988; 김영평, 1994; 최병선, 1994). 이는 기술사회인 현대사회에서 기술효율성에 상응하는 위험이 반드시 존재하고(Wildavsky, 1988; Beck, 1992), 생산한 기술은 객관적 사실보다 더 큰 두려움을 주며(Zimmerman, 1985; 김영평, 1994), 문화권에 따라 기술재해를 인지하는 정도가 달라 개별적인 위험문화(risk culture)를 형성하기 때문이다(Duglas & Wildavsky, 1982). 나아가 Jones(1993)는 자연적 위험과 기술적 위험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을 자연적 위험(environmental hazards), 기술적 위험(technological hazards), 사회적 위험(social hazards)의 세 범주로 분류했다. 자연적 위험은 인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홍수, 가뭄,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앙(Events)을, 기술적 위험은 인공물이나 기술적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건물·교량의 붕괴, 오염, 폭발 등의 사고(Accidents)를, 사회적 위험은 인간행동으로 발생하는 절도, 폭력 등 사건(Incidents)을 의미한다(정국환·유지연, 2010: 29). Jones(1993)는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위험 요인을 세 가지로 제시했으나, 위험발생 결과는 세 가지 위험 요인이 연속선상(continuum)⁹⁾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Jones, 1993: 162).

이상의 위험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험을 자연적 위험과 기술적 위험으로 분류한 기존의 견해를 세분화한 Jones(1993)의 분류에 따라 위험을 유형화하였다. 즉, 본 연구는 도시위험을 거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1) 자연적 위험(재해위험), 2) 사회적 위험(야간보행 위험, 범죄피해위험), 3) 기술적 위험(건축물사고 위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도시위험 인식을 ‘주민이 거주지역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도시위험인식과 행복의 선행연구¹⁰⁾

첫째, 자연적 위험 측면에서 기존연구는 자연재해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Luechingerr & Raschky, 2009; Ardalan et al., 2011; Wang et al., 2000)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Yamamura, 2012; Ishino, 2012; Uchida, 2013). 자연재해와 행복의 부정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Kimball 외(2006)와 Calvo 외(2014)는 카트리나 허리케인 피해자의 행복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허리케인 발생 이후 피해자들의 행복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규명했다. 특히 Kimball(2006)은 피해지역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주민들의 행복도 감소하였으며, 카트리나 피

9) 준자연재해(quasi-natural hazards)와 복합적 위험(hybrid hazards)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토지이용방식 변경으로 발생한 홍수피해, 지진에 의한 건축물붕괴(자연적 위험+기술적 위험), 산성비, 사막화, 지구온난화 등은 원 인과는 별개로 복합적 피해를 야기한다.

10) 도시위험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실제 발생한 위험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사전위험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함께 살펴보았다.

해주민의 행복 감소가 다른 지역주민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홍수(Luechingerr & Raschky, 2009; 이선혜, 2004), 가뭄(Carroll et al., 2009; Keshavarz & Karami, 2012), 지진(Wang et al., 2000; Ardalan et al., 2011)등의 자연재해도 행복이나 주관적 웰빙,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

한편, 자연재해와 행복의 긍정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로서 Yamamura(2012)는 1995년 발생한 고베 대지진 피해자들의 행복감이 지진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생존여부는 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생존자는 생존 그 자체만으로도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어 행복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Yamamura, 2012). 또한 Ishino 외(2012)는 대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35%가 지진발생 이후 행복이 증가했다고 생각한 반면, 5%만이 행복이 감소했다고 인식함을 밝혔다. 2011년 일본 대지진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Uchida 외(2013)의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의 행복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위험 중 하나인 범죄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피해 우려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Møller, 2005; Powdthavee, 2005; Davies & Hinks, 2010). Møller(2005)는 실제 범죄피해보다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Powdthavee(2005)는 범죄피해자가 비피해자보다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으며, 직접적인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etcalfe 외(2011)는 미국 9.11 테러발생이 영국시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했음을 밝혔다. Davies와 Hinks(2010)는 성별에 따라 범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제시하였는데, 여성은 직접적인 범죄피해보다는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남성은 폭행과 범죄율이 행복에 U자 형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Carp와 Christensen(1986)은 독거노인여성의 범죄위험회피성향이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직접적인 범죄피해 측면에서, 테러발생은 사람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감, 공포, 분노 등의 감정을 야기하고(Lerner et al., 2003; Rubin et al., 2005, 2007; Krueger, 2008; Camacho, 2008), 강도·절도피해, 마약 등도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ok, 2010; Kuroki, 2013). 그러나 Micholas와 Zumbo(2000)는 범죄피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셋째, 기술적 위험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임현진 외(1997)는 ‘미래의 안전사고 가능성’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거주자가 집주변 환경을 위험하다고 인식할수록 안전과 관련한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Berger(2010)는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독일인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독일은 사고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가 독일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은 삶의 만족을 개인적 관점에서 평가한다고 해석하였다. Rehdanz 외(2013)는 사회기반시설 파괴와 방사능유출을 야기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사고지역주민의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유현정·이재은(2010)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태안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주장하였다.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태풍, 홍수·가뭄, 지진 등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혹은 범죄·사고와 같은 인위적 위험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 중에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위험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위적 위험을 포함한 서울지역의 도시 위험을 중심으로 그것이 주민들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연구들은 주로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de-motivator)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개별적인 재해나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전반적이며 잠재적인 일반위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1) 자연재해, 2) 야간보행 위험, 3) 범죄, 4) 건축물사고 등 자연재해 외에도 인위재난을 포함한 도시위험을 중심으로 위험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셋째, 본 연구는 확률표본 추출을 통해 형성된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외적 타당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지역의 재해나 사건·사고 전후의 경험자 집단 또는 비확률표본추출에 의한 소규모 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12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층화2단 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추출을 하였으며, 서울시민 49,758명을 조사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국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 지역의 도시위험과 주민행복을 분석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모형 및 방법

1.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1) 연구가설과 분석틀

(1) 연구가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자연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술적 위험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연적 위험인식 측면에서 재난발생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Yamamura, 2012; Ishino, 2012; Uchida, 2013)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Luechingerr & Raschky, 2009; Ardalan et al., 2011; Wang et al., 2000). 사회적 위험인식 측면에서도 범죄피해의 우려 및 범죄피해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Møller, 2005; Powdthavee, 2005; Davies & Hinks, 2010)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존재한다(Micholas & Zumbo, 2000). 마지막으로 기술적 위험인식 측면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 및 안전사고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Rehdanz et al., 2013; 임현진 외, 1997; 유현정·이재은, 2010) 안전사고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Berger, 2010)가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 가설: 지역사회 도시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자연적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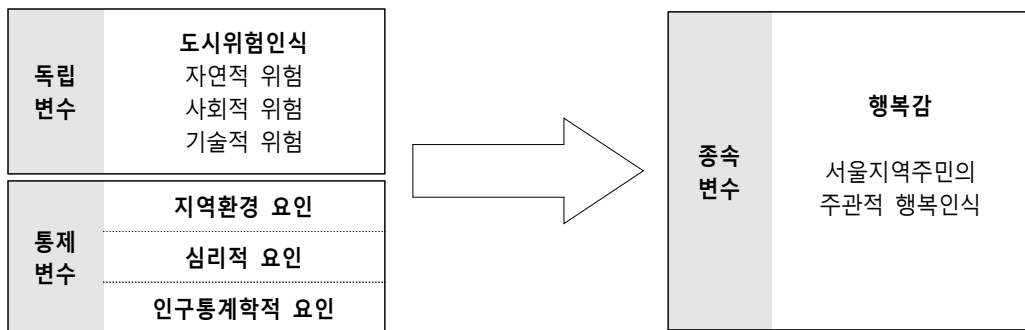
가설 2: 사회적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술적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도시위험인식이 주민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 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는 주민행복감으로, 독립변수는 지역사회의 도시위험인식으로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는 주민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요인 및 지역환경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다시 심리적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심리적 요인은 낙관주의, 신뢰, 이념, 이타심으로 볼 수 있는 기부·봉사료,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혼인상태, 가계소득, 종교, 주택소유, 주거유형, 거주기간으로 구성하였다. 지역환경 요인은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거주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위험인식이 주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으며, 최소자승추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하였

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주민행복감} = \alpha + \beta_1(\text{도시위험인식}) + \beta_2(\text{지역환경 요인}) + \beta_3(\text{심리적 요인}) + \beta_4(\text{인구통계학적 요인}) + \varepsilon$$

2. 분석 자료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2차 자료(secondary data)인 「201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근거한다. 서울시민의 도시위험인식과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1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및 주요변수들의 정의와 측정에 대해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조사대상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서울시의 「201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매 년 “서울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도시 발전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과 시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2: 381). 「2012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인구 49,758명)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실시하여 이루어졌으며, 표본추출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과 과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층화2단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서울특별시, 2012: 16). 가구원 데이터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pm 0.46\%$ 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구원 49,758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행복 연구들에 비해 표본수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의 측정: 주민행복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민행복감은 「2012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주민행복감은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재정상태’, ‘주위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점수를 모두 합한 후 5로 나누어 측정하였다.¹¹⁾

(2) 독립변수의 측정: 도시위험인식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도시위험인식이다. 도시위험인식은 「2012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자연적 위험은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

11)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0.842로 나타났다.

해로 인한 피해”, 사회적 위험¹²⁾은 “2)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기술적 위험은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로 측정하였다. 응답카테고리는 ‘매우 위험하다(5점)-보통이다(3점)-전혀 위험하지 않다(1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시위험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의 측정

① 지역환경 요인의 측정

지역환경 요인은 주거 환경, 경제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 문화 환경, 거주 지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주거 환경, 경제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은 「2012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설문 중 1) 주거 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 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 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 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문화 환경은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 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거주 지역은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강북지역과 강남 지역으로 분류한 후 강남권을 기준(=0)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② 개인적 특성요인의 측정

개인적 특성요인은 ‘심리적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심리적 요인은 낙관주의, 주관적 계층인식, 신뢰, 이념성향, 이타심인 기부, 봉사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낙관주의는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인식을 ‘①상상, ②상하, ③중상, ④중하, ⑤하상, ⑥하하’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는 ‘1)가족, 2) 이웃, 3) 처음 만난 사람, 4) 다른 나라 사람, 5)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5점 척도의 응답점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수준은 이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¹³⁾ 이념성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로서 ‘1) 장애인, 2) 가난의 책임, 3)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4)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하여 4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고¹⁴⁾,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는 지난 1년간 기부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그 외의 응답은 1로 측정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0으로, 그 외의 응답을 1로 측정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혼인상태, 주택소유, 주거유형, 종교, 거주기간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0)으로 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고,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로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 ‘①중졸이하, ②고졸이하, ③전문대 이하, ④대학교 이하, ⑤대학원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은 응답자의 세금납부 전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으로서 ‘①100

12) ‘사회적 위험’의 Cronbach’s α 값은 0.799이다.

13) ‘신뢰’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0.638로 나타났다.

14) ‘이념성향’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0.466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미만, ③200~300만원 미만, ④300~400만원 미만, ⑤400~500만원 미만, ⑥500만원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직업은 응답자의 고용 형태로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정규직은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비정규직은 시간제 혹은 기타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무직은 직업이 없는 경우로서 무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이재완, 2014: 422). 혼인상태는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기혼과 미혼으로 구분하고, 미혼을 기준으로(=0)하여 더미변수 측정을 하였다. 주택소유는 응답자의 입주형태로서 자가, 전세, 월세/기타로 분류하고, 자가를 기준(=0)으로 더미변수 측정을 하였으며, 주거유형은 응답자의 주택형태로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기타로 분류하고, 단독주택을 기준(=0)으로 하여 더미변수 측정을 하였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 기간은 서울시에 거주한 총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과 변수의 측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에 사용된 문항

변수		사용된 문항	측정
종속 변수	행복감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자신의 건강상태 2) 자신의 재정상태 3) 주위친지, 친구와의 관계 4) 가정생활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계모임 등)	5개 응답점수의 합 ÷ 5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립 변수	도시위험 인식	자연위험 1)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매우 위험하다(5점) ... 전혀 위험하지 않다(1점)
		사회위험 2) 밤늦게 걸어 다닐 경우 3)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기술위험 4) 건물, 엘리베이터 추락, 다리붕괴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 사고	
지역 환경 요인	주거 환경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의 만족도	매우 만족(5점) ... 매우 불만족(1점)
	경제 환경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의 만족도	
	사회 환경	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의 만족도	
	교육 환경	교육비, 교육여건 등의 만족도	
	문화 환경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	
	거주 지역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 강남지역(=기준), 강북지역	

심리적 요인	낙관주의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5점) ... 매우 낮다(1점)
	주관적 계층인식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하하, ②하상, ③중하, ④중상, ⑤상하, ⑥상상
	신뢰	“귀하께서는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가족, 2) 이웃, 3) 처음만난 사람, 4) 다른 나라 사람, 5) 공공기관	매우 신뢰(5점) ... 전혀 신뢰안함(1점), 5개 응답점수의 합 ÷ 5
	이념성향	“귀하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5점) ... 전혀 그렇지 않다(1점), 4개 응답점수의 합 ÷ 4
	자원봉사	“귀하는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1), 없다(=0)
	기부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이용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입니까?”	있다(=1), 없다(=0)
	인구 통계 학적 요인	성별	응답자의 성별
연령		응답자의 나이	①10대 ... ⑥60대 이상
학력		응답자의 최종 학력	①중졸이하 ... ⑤대학원이상
소득		1년 동안 가구 월평균 세전 소득	①100만 미만 ... ⑥500만 이상
직업		정규직(전일제), 비정규직(시간제, 기타), 무직(=기준)	해당(=1), 비해당(=0)
혼인상태		귀하의 혼인상태는?	①기혼(=1), ②미혼(=0)
종교		있다(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기타), 없다(=기준)	있다(=1), 없다(=0)
주택소유		자가주택소유(=기준)	①자가, ②전세, ③월세/기타
주거유형		주거종인 주택의 형태	①단독주택(=기준), ②아파트, ③다세대 주택 ④연립/기타
거주기간		서울시에 거주한 총 기간	거주 년 수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서울시 주민의 도시위험인식이 주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PSS 20.0을 사용하였다. 모든 응답데이터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위험인식이 주민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비율(%)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성별	여성	23,310	51.9	학력	중졸이하	7,680	17.1
	남성	21,619	48.1		고졸이하	14,650	32.6
연령	10대	3,190	7.1		대졸이하	22,045	49.1
	20대	6,943	15.5		대학원이상	554	1.2
	30대	9,131	20.3	직업	정규직	24,802	55.2
	40대	10,002	22.3		비정규직	2,257	5.0
	50대	7,992	17.8		무직	17,870	39.8
	종교	60대 이상	7,670	17.1	거주 지역	강북권	24,687
있다		16,755	37.3	강남권		25,071	50.4
기부	없다	28,174	62.7	계층 인식	상상	22	0.0
	경험 있다	17,191	38.3		상하	802	1.6
봉사	경험 없다	27,738	61.7		중상	9,795	19.7
	경험 있다	10,289	22.9		중하	25,695	51.6
소득	경험 없다	34,639	77.1		하상	12,075	24.3
	100만원 미만	956	2.1		하하	1,370	2.8
	100~200만원	3,408	7.6	주거 형태	단독주택	16,755	37.3
	200~300만원	6,427	14.3		아파트	19,613	43.7
	300~400만원	11,123	24.8		다세대주택	6,088	13.6
	400~500만원	10,532	23.4		연립/기타	2,473	5.5
결혼	500만원 이상	12,483	27.8	주택 소유 형태	자가	22,611	50.3
	미혼	13,176	29.3		전세	14,519	32.3
	기혼	31,753	70.7		월세/기타	7,800	17.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 51.9%, 남성 48.1%로 여성과 남성의 응답비율이 유사하였다. 연령은 40대가 22.3%로 가장 많았고, 30대 20.3%, 50대 17.8%, 60대 이상 17.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하 49.1%, 고졸이하 32.6% 순이었으며, 직업의 경우 정규직이 5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7.8%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 원 24.8%, 400~500만 원 23.4%순이었다. 혼인상태는 기혼 70.7%, 미혼 29.3%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50.3%, 전세 32.3%, 월세 및 기타 17.4%로 나타났으며, 주거 형태는 아파트 43.7%, 단독주택 37.3%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37.3%, 없는 사람은 62.7%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은 38.3%, 없는 사람은 61.7%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9%, 없는 사람은 77.1%으로 기부 혹은 자원봉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한편 응답자가 느끼는 주관적 계층인식은 중하 51.6%, 하상 24.3%순으로 대부분 계층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강북권 49.6%, 강남권 50.4%로 유사한 비중이었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감		49,758	6.768	1.121	0	10
도시 위험	자연위험	49,758	2.470	0.878	1	5
	사회위험	49,758	3.113	0.812	1	5
	기술위험	49,758	2.510	0.895	1	5
지역 환경 요인	주거환경	49,758	3.520	0.733	1	5
	경제환경	49,758	3.210	0.795	1	5
	사회환경	49,758	3.330	0.803	1	5
	교육환경	49,758	3.210	0.792	1	5
	문화환경	49,758	3.550	0.910	1	5
심리 적요 인	낙관주의	49,758	3.030	0.920	1	5
	계층인식	49,758	4.070	0.783	1	6
	신뢰	49,758	2.717	0.620	1	5
	이념성향	49,758	3.270	0.556	1	5
거주기간		49,758	28.830	13.918	1	88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서울시 주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은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위험인식정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환경에 대한 서울시 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지도 매우 불만족하지도 않는 보통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주민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768로서 보통(5점)보다는 다소 높았다. 도시위험인식의 경우 5점 만점에 사회적 위험이 3.113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적 위험 2.510, 자연적 위험 2.470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대체로 서울시를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환경의 경우 주거 환경 3.520, 경제 환경 3.210, 사회 환경 3.330, 교육 환경 3.210, 문화 환경 3.550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계층인식은 6점 만점에 4.070, 낙관주의 및 이념성향은 5점 만점에 각각 3.030, 3.270으로서 보통(3점)을 조금 상회하였으며, 신뢰는 2.717로 보통(3점)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서울 거주기간은 평균 28.83년으로 다소 긴 편으로 나타났다.

2. 도시위험인식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상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주민행복감과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¹⁵⁾ 종속변수와 대부분의 설명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주민행복감과 독립변수인 도시위험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연적 위험과 -0.034 , 사회적 위험과 -0.035 , 기술적 위험과 -0.040 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한편,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자연적 위험 1.493, 사회적 위험 1.254, 기술적 위험 1.576, 성별, 1.178, 학력 1.375, 종교 1.048, 신뢰 1.073, 기부 1.128, 자원봉사 1.147 등으로 나타났다. VIF지수는 문화 환경이 최소로 1.032, 연령이 최대로 2.959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이보다 낮아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도시위험인식이 주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이 주민행복감을 설명하는 R^2 는 24.3%이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인 도시위험인식은 주민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위험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인식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적 위험인식이 높아질수록 서울시 주민의 행복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적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을 지지하였다. 자연적 위험인식과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사회적 위험인식은 주민행복감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져 ‘사회적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를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사고와 같은 기술적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서울시 주민의 행복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적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을 입증했다.

도시위험인식이 주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시위험인식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기술적 위험이 주민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컸으며($\beta=-0.024$), 자연적 위험($\beta=-0.015$), 사회적 위험($\beta=-0.009$) 순이었다. 즉, 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기술적 위험이 사회적 위험보다 약 3배, 자연적 위험이 사회적 위험보다 약 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사고 유형 중 ‘교통사고, 질병, 도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삶의 질을 가장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 임현진 외(1997)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세 가지 위험인식 유형 중 기술적 위험이 행복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술적 위험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엘리베이터, 교량 등과 같은 건축물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존재하지만 생소한 기술로 인해 훨씬 더 큰 두려움을

15)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주기 때문(Zimmerman, 1985; 김영평, 1994)이다.

통제변수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들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역환경 요인인 주거·경제·사회·환경·교육·문화 환경변수는 행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환경 요인 중 교육환경의 경우 자녀의 출세와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좋은 교육여건은 출세와 밀접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최말옥·문유석, 2011: 293).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행복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B	표준오차	β		
독립 변수	도시위험인 식	자연적 위험	-0.019***	0.006	-0.015	-3.188	
		사회적 위험	-0.013**	0.006	-0.009	-2.115	
		기술적 위험	-0.030***	0.006	-0.024	-4.920	
통제 변수	지역환경 요인	주거 환경	0.062***	0.007	0.040	8.825	
		경제 환경	0.141***	0.006	0.100	22.185	
		사회 환경	0.105***	0.007	0.075	15.807	
		교육 환경	0.050***	0.007	0.035	7.347	
		문화 환경	0.049***	0.005	0.040	10.099	
		거주 지역	-0.169***	0.009	-0.075	-18.719	
	심리 적요 인	낙관주의	0.142***	0.005	0.116	28.874	
		주관적 계층인식	0.152***	0.006	0.106	25.243	
		신뢰	0.182***	0.009	0.085	21.010	
		이념성향	0.142***	0.008	0.070	17.334	
		자원봉사	-0.117***	0.011	-0.044	-10.441	
		기부	0.106***	0.010	0.046	11.072	
		개인 적 특성 요인	성별	0.014	0.009	0.006	1.506
			연령	-0.162***	0.005	-0.226	-33.630
			학력	0.141***	0.007	0.098	21.382
			소득	0.099***	0.004	0.120	26.365
			직업	정규직	0.058***	0.011	0.026
	비정규직			0.165***	0.021	0.032	7.819
	혼인		기혼	0.062***	0.015	0.025	4.209
	주택 통계 학적 요인		전세	0.025**	0.010	0.011	2.417
			월세	-0.043***	0.014	-0.014	-3.110
	주거 유형		아파트	-0.019*	0.010	-0.008	-1.859
		다세대	0.139***	0.014	0.043	10.019	
		연립주택	0.083***	0.020	0.017	4.162	
		종교	0.066***	0.009	0.029	7.348	
		거주기간	0.002***	0.000	0.025	5.187	
	(상수)			4.475***	0.066		67.958
관측치					49,758		
R ² (Adjusted R ²)					0.243 (0.243)		
F 값					550.769***		

주1: *P < 0.1, **P < 0.05, ***P < 0.01

주2: 더미변수 기준: 거주 지역(=강남권), 성별(=여성), 직업(=무직), 혼인(=미혼), 주택(=자가), 주거유형(=단독주택)

둘째, 개인적 특성요인 중 심리적 요인인 낙관주의, 주관적 계층인식, 신뢰, 이념성향, 기부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주의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사고가 행복감을 향상시킨다는 Ciarrochi 외(2007) 및 Cheng 과 Furnham(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주관적 계층인식 및 이념성향도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Oshio et al., 2011; DiTella & MacCulloch, 2005), 기부활동도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학력, 소득, 혼인상태, 거주 기간, 종교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력이 높을수록(Gerdtham & Johannesson, 2001; Helliwell & Putnam, 2004; Ball & Chernova, 2008),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으며(Hagerty & Veenhoven, 2003; Hellevik, 2003), 서울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행복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행복감을 느꼈으며, 이는 혼인과 행복이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Diener et al., 2000; Diener & Biswas-Diener, 2008). 종교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y와 Stutzer(2010: 59)가 제시하였듯이 종교는 사교적 행위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며(Ellison, 1991), 어려움을 곧 신의 뜻으로 여기며 역경을 보다 수월히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 중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자원봉사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과 행복이 U자형의 관계를 갖는다는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는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Cantrill(1965)의 주장과 일치한다. 자원봉사는 행복과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비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에 비해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낮다는 도중수(2011)의 연구결과¹⁶⁾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의 비중이 높아 자원봉사활동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직업, 주택소유, 주거유형, 거주 지역은 각 유형마다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무직보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행복을 더 크게 느껴 직업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Campbell, 1976; Inglehart, 1990; Binder-Coad, 2013). 주거유형의 경우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Myers & Diener, 1995). 그러나 아파트 거주자의 행복감은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낮았는데, 이는 주거환경과 노인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정재훈(2013)의 연구에서 아파트 거주자보다 단독주택 거주자가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아파트 거주자는 비아파트 거주자보다 공동체의

16)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강철희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자원봉사와 기부는 대체적 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에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취업자는 기부, 비취업자는 자원봉사가 더 적은 기회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합리적 선택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취업자’가 60.2%,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90.3%로 자원봉사보다 기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경우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강요된 비자발적 자원봉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이 낮고 이웃 간 교류가 적기 때문에(Farrell et al., 2004: 22) 행복감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주택소유 형태의 경우 자가 거주자가 전세 거주자보다는 행복감이 낮고, 월세 거주자보다는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 전세, 자가, 월세 거주자의 순서로 행복감이 낮았다. 이는 전세나 월세보다 자가 거주자의 행복감이 더 높다는 최말옥·문유석(2011)의 연구결과와 자가 소유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임현진 외(1997)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거주 지역의 경우, 강남권 거주자가 강북권 거주자보다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나 서울지역 권역별로 거주자의 행복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특성요인인 성별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더 행복하다는 기존의 연구들(Inglehart, 1990; White, 1992; Hellevic, 2003)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위험인식이 서울시 주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도시위험인식과 행복감의 관계를 다룬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이 행복을 감소시키는 요인(de-motivator)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위험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위험인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위험요인을 자연재해 외에도 범죄 및 건축물 사고와 같은 인위적 위험까지 포함하여 위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위험을 자연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술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위험인식 유형과 행복감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넷째, 위험인식이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국민행복 정책 및 안전정책 수립 방향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주민의 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도시위험인식은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주민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768로 보통수준(5점)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위험의 경우 서울시 주민은 사회적 위험, 기술적 위험, 자연적 위험 순으로 위험을 높게 인식하여 서울에 거주하면서 범죄위험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자연재해를 가장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도시위험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기술적 위험인식이 가장 컸고($\beta=-0.024$), 자연적 위험인식이 그 다음이었으며($\beta=-0.015$), 사회적 위험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09$).

위험과 안전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임현진 외, 1997: 164). 일반적으로 위험(risk)과 안전(safety)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류상일 외, 2010), 위험과 안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위험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안전을 정의하고 있다¹⁷⁾. 안전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이며(Maslow,

17) 이 경우, 안전(safety)이란 ‘위험(risk)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규범적 정의가 가능하다.

1954), 안전한 환경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이다.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재해,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만연한 위험은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특히 주민의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는 도시 전반의 위험요인을 줄여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Wassmer(2009)는 지방정부가 공공안전 분야의 재정지출을 늘릴수록 개인 행복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주민의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도시위험인식이 주민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본 연구의 도시위험유형 중 기술적 위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컸으며, 이는 사회적 위험의 영향력보다 약 3배 정도 컸다. Rehdanz 외(2013: 18)는 기술적 위험의 일종인 원전사고 피해를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결과 그 금액은 홍수·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위험요인 중 기술적 위험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위험요인보다 크므로 정부는 건축물 붕괴, 원전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허가·관리, 안전성관리 평가기준 확립 등 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자연적 위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기술적 위험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개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고변화는 행복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Yamamura, 2012: 3) 자연재해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자연재해는 경제발전 수준과 관련 없이 발생하지만,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Kahn, 2005) 정부는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복구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홍수와 삶의 만족 관계를 연구한 Luechinger와 Raschky(2009)는 의무재해보험과 같은 위험이전기제를 통해 자연재해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은 장기간 지속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행복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범죄와 개인안전은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Powdthavee, 2005). 또한, 심각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범죄피해 이전의 행복수준을 향유하기가 매우 어렵다(Wemmers, 2002). 이와 관련하여 Michalos(2003)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한 치안방범활동을 통해 주민행복을 증진해야하며, 경찰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지역 가구원 49,758명을 대상으로 도시위험인식과 주민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이외 지역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동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12년 단년도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어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다수준 분석(multi-level)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창민(2010), 「제주특별도민의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강철희·유재윤·박소현. (2012). 기부와 자원봉사에서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2), 273-298.
- 「경향신문」. (2014. 04. 25). [사설] 청와대는 언제까지 책임 회피만 할 텐가. 31면 20판.
- 구재선·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권세원·이애현·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미령. (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SUM), 241-268.
- 김상곤·김성중. (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325-351.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평. (1994). 현대사회와 위험의 문제. 「한국행정연구」, 3(4), p9.
- 김종표. (1991). 신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 김학로. (1994).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 김형렬. (1987). 정책집행에 있어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18(단일호), 65-87.
- 도중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 「동아일보」. (2014. 04. 25). [사설] 세월호 참사에 청와대는 책임 없단 말인가. 27면 50판.
- 류상일·이민규·안혜원. (2010). 국민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245-249.
- 배나래·박충선. (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761-779.
- 서울특별시. (2013). <2012 서울서베이>
- 성은모·김근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송건섭·김영오·권용현. (2008).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2(4), 225-249.
- 송건섭. (2011).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방안. 「한국행정논집」, 23(3), 853-877.
- 유현정·이재은. (201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후 직업별 관점에서 본 태안지역사회의 삶의 질 문제. 「한국위기관리논집」, 6(3), 63-85.

- 이선혜. (2004). 수재민의 수해로 인한 영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5(1), 145-154.
- 이성규.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연구원.
- 이승중. (2002).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5-22.
- _____. (2005).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_____.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1), 99-119.
- 이재완.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인지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409-437.
- 이재은. (2009).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6), 300-308.
- 임현진·이재열·박광민·설동훈. (1997). 신체적·심리적 안전과 삶의 질. 「한국인구학」, 20(1), 161-199.
- 정국환·유지연. (2010). 「공공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위험관리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재훈. (2013).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15(6), 93-100.
- 정진성 외. (2010). 「위험사회, 위험정치」 (Vol.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성호 외. (2009). 「경기도민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최말옥·문유석. (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9.
- 최병선. (1994). 위험문제의 특성과 전략적 대응. 「한국행정연구」, 3(4), 27-49.
- 한원택. (1995). 지방행정론: 이론·제도·실제. 서울: 법문사.
- 황명진·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 Alesina, A., Di Tella, R., & MacCulloch, R.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 2009-2042.
- Andrew,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and London: Plenum*, 20-31.
- Ardalan, A., Mazaheri, M., Vanrooyen, M., Mowafi, H., Nedjat, S., Naieni, K. H., & Russel, M. (2011). Post-disaster quality of life among older survivors five years after the Bam earthquake: implications for recovery policy. *Ageing and society*, 31(02), 179-196.
- Argyle, M. (2003). 18 Causes and Correlates of Happines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353.
- Bakshi, R. (2004). Gross national happiness. *post-autistic economics review*, 26(2).
- Ball, R., & Chernova, K. (2008).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3), 497-529.
- Bowling, A., Gabriel, Z., Dykes, J., Dowding, L. M., Evans, O., Fleissig, A., . . . Sutton, S. (2003). Let's ask them: a national survey of definitions of quality of life and its enhancement among people aged 65 and ov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6(4), 269-306.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 _____. (2006). Risk society revisited. *The risk society and beyond: Critical issues for social theory*.
- Berger, E. M. (2010). The Chernobyl disaster, concern about the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63(1), 1-8.
- Binder, M., & Coad, A. (2013). Life satisfaction and self-employment: a matching approach. *Small Business Economics*, 40(4), 1009-1033.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 1359-1386.
- Bok, D. (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What government can learn from the new research o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of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 Bradburn, N.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NORC; monographs in social research.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15).
- Calvo, R., Arcaya, M., Baum, C. F., Lowe, S. R., & Waters, M. C. (2014). Happily Ever After? Pre-and-Post Disaster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Survivors of Hurricane Katrin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6.
- Camacho, A. (2008). Stress and birth weight: evidence from terrorist attack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515.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
- Cantril, H. (1965). Pattern of human concerns.
- Carp, F. M., & Christensen, D. L. (1986). Technical Environmental Assessment Predictor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 Study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Research on Aging*, 8(2), 269-287.
- Carroll, N., Frijters, P., & Shields, M. A. (2009). Quantifying the costs of drought: new evidence from life satisfaction dat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2), 445-461.
- Cheng, H., & Furnham, A. (2003). Personality, self-esteem, and demographic prediction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6), 921-942.
- Ciarrochi, J., Heaven, P. C., & Davies, F. (2007). The impact of hope, self-esteem, and attributional style on adolescents' school grades and emotional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6), 1161-1178.
- 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95-144.
- Clark, A. E., & Oswald, A. J. (1996).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3), 359-381.
- D'Acci, L. (2007).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1), 47-65.

- Davies, S., & Hinks, T. (2010). Crime and happiness amongst heads of households in Malawi.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4), 457-476.
- Di Tella, R., & MacCulloch, R. (2005). The consequence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Panel evidence based on survey data. *European Economic Review*, 49(5), 1225-125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0575
- _____.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 Biswas-Diener, R. (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2), 119-169.
- _____. (2008). *The science of optimal happiness*. Boston: Blackwell Publishing.
- Diener, E., Diener, M., & Diener, C.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
- Diener, E., Gohm, C. L., Suh, E., & Oishi, S. (2000). Similarity of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4), 419-436.
- Diener, E., Sandvik, E., & Pavot, W. (2009). 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affect. In *Assessing well-being* 213-231. Springer Netherlands.
- Diener, E., & Seligman, M. E.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 1-31.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Douglas, M., & Wildavsky, A. (1982). Risk and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72, 10-15.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 Eid, M., & Larsen, R. J. (Eds.). (2008).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Guilford Press.
- Ellison, C. G. (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80-99.
- Farrell, S. J., Aubry, T., & Coulombe, D. (2004). Neighborhoods and neighbors: Do they contribute to personal well-be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1), 9-25.
- Frey, B. S., & Stutzer, A.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435.
- _____. (2010).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jters, P., & Beatton, T.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 ag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2(2), 525-542.
- Gerdtham, U. G., & Johannesson, M.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553-557.
- Giddens, A. (1972). ELITES IN THE BRITISH CLASS STRUCTURE*. *The Sociological Review*, 20(3), 345-372.
- _____.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Polity, Cambridge.
- _____. (2001). *The global third way debate*. Polity Press
- Hagerty, M. R., &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Hellevik, O. (2003). Economy, values and happiness in Norwa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3), 243-283.
- Helliwell, J. (2001). Social capital, the economy and well-being. *The review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1.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1435-1446.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Ishino, T., Ogaki, M., Kamesaka, A., & Murai, S. (2012). The impact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n happiness. *Dynamism of household behaviour in Japan: The effects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n the households*, 255-272.
- Jackman, M. R., & Jackman, R. W. (1985).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Vol. 343). Univ of California Press.
- Jones, D. (1993). Environmental hazards: The challenge of change: Environmental hazards in the 1990s: problems, paradigms and prospects. *Geography*, 161-165.
- Kahn, M. E. (2005). The death toll from natural disasters: the role of income, geography, and institu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2), 271-284.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Schwarz, N., & Stone, A. A. (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2(5782), 1908-1910.
- Keshavarz, M., & Karami, E. (2012). Drought and happiness in rural Ir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3(3), 66-76.
- Kimball, M., Levy, H., Ohtake, F., & Tsutsui, Y. (2006). *Unhappiness after hurricane Katrina* (No. w1206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rueger, A. B. (2008). *What makes a terrorist: Economics and the roots of terror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roki, M. (2011). Does social trust increase individual happiness in Japan?. *Japanese Economic Review*, 62(4), 444-459.
- _____. (2013). Crime victimiz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happiness dat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3), 783-794.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orm a New Science. *London: Allen Lane*.
- Lerner, J. S., Gonzalez, R. M., Small, D. A., & Fischhoff, B. (2003). Effects of Fear and Anger on Perceived Risks of Terrorism A National Field Experiment. *Psychological science*, 14(2), 144-150.
- Luechinger, S., & Raschky, P. A. (2009). Valuing flood disasters using the life satisfaction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3), 620-633.
- Maslow, A., & Herzberg, A. (1954). Hierarchy of needs. *AH Maslow. ea.,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New York*.
- Mcdowell, I & Newell, C. (1987). *Measuring health - a guide to rating-scales and questionnaires -*
- Metcalfe, R., Powdthavee, N., & Dolan, P. (2011). Destruction and Distress: Using a Quasi-Experiment to Show the Effects of the September 11 Attacks on Mental Well-Being in the United Kingdom. *The Economic Journal*, 121(550), 81-103.
- Michalos, A. C. (2003). Policing services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1), 1-18.
- Michalos, A. C., & Zumbo, B. D. (2000). Criminal victim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3), 245-295.
- Moberg, D. O., & Taves, M. J. (1965). Church participation and adjustment in old age.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 Philadelphia: FA Davis*.
- Møller, V. (2005). Resilient or resigned? Criminal victimisation and quality of life in South Africa. *Social Indicators Research*, 72(3), 263-317.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Nakagawa, Y., & Shaw, R. (2004). Social capital: A missing link to disaster recovery.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22(1), 5-34.
- Oshio, T., Nozaki, K., & Kobayashi, M. (2011).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in Asia: Evidence from nationwide surveys in China, Japan, and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3), 351-367.
-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445), 1815-1831.
- Powdthavee, N. (2005). Unhappiness and crime: evidence from South Africa. *Economica*, 72(287), 531-547.
- _____. (2010). How much does money really matter? Estimating the causal effects of income

- on happiness. *Empirical Economics*, 39(1), 77-92.
- Ranzijn, R. (2002). The potential of older adults to enhance community quality of life: Links between positive psychology and productive aging. *Ageing International*, 27(2), 30-55.
- Rehdanz, K., Welsch, H., Narita, D., & Okubo, T. (2013). Well-being effects of a major negative externality: The case of Fukushima: Kiel Working Paper.
- Rubin, G. J., Brewin, C. R., Greenberg, N., Simpson, J., & Wessely, S. (2005). 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reactions to the bombings in London on 7 July 2005: cross sectional survey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Londoners. *Bmj*, 331(7517), 606.
- Rubin, G. J., Brewin, C. R., Greenberg, N., Hughes, J. H., Simpson, J., & Wessely, S. (2007). Enduring consequences of terrorism: 7-month follow-up survey of reactions to the bombings in London on 7 July 2005.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0(4), 350-356.
- Trewin, D. (2001). *Measuring wellbeing: Frameworks for Australian social statistic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1.
- Uchida, Y., Norasakkunkit, V., & Kitayama, S. (2013). Cultural Constructions of Happines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In *The Exploration of Happiness* (pp. 269-280). Springer Netherlands.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_____. (1993). Happiness in nations.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1946-1992.
- _____. (2000). Freedom and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in forty-four nations in the early 1990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257-288.
- Wang, X., Gao, L., Zhang, H., Zhao, C., Shen, Y., & Shinfuku, N. (2000). Post-earthquake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Longitudinal evaluation in a rural community sample in northern China.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4(4), 427-433.
- Wassmer, R. W., Lascher Jr, E. L., & Kroll, S. (2009). Sub-national fiscal activity as a determinant of individual happiness: Ideology matte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63-582.
- Wemmers, J.-A. (2002). Restorative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 victim-oriented approach to restorative justic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9(1), 43-59.
- White, J. M. (1992). Marital Status and Well-Being in Canada An Analysis of Age Group Vari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3(3), 390-409.
- Wildavsky, A. B. (1988). *Searching for safety* (Vol. 10).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Wilson, G., & Baldassare, M. (1996). Overall "Sense of Community" in a Suburban Region The Effects of Localism, Privacy, and Urbaniza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28(1), 27-43.
- Yamamura, E. (2012). Natural disasters and their long-term effect on happiness: the case of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 Zimmerman, R. (1985). The relationship of emergency management to governmental policies on man-made technological disast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9-39.
- 大竹文雄. (2010). *日本の幸福度: 格差・労働・家族*. 日本評論社.

[부록]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행복감	1																		
2. 자연위험	-0.034***	1																	
3. 사회위험	-0.035***	0.267***	1																
4. 기술위험	-0.040***	0.556***	0.354***	1															
5. 주거환경	0.182***	-0.062***	-0.088***	-0.085***	1														
6. 경제환경	0.229***	0.036***	-0.065***	-0.016***	0.379***	1													
7. 사회환경	0.203***	-0.079***	-0.031***	-0.089***	0.380***	0.375***	1												
8. 교육환경	0.178***	-0.033***	-0.082***	-0.050***	0.420***	0.370***	0.495***	1											
9. 문화환경	0.089***	-0.017***	-0.049***	-0.047***	0.038***	0.057***	0.053***	0.044***	1										
10. 낙관주의	0.196***	0.027***	-0.089***	-0.026***	0.083***	0.111***	0.063***	0.095***	0.025***	1									
11. 계층의식	0.222***	0.027***	0.022***	0.041***	0.090***	0.151***	0.064***	0.081***	0.037***	0.150***	1								
12. 신뢰	0.134***	0.013***	-0.096***	0.001	0.090***	0.085***	0.104***	0.108***	0.066***	0.069***	-0.039***	1							
13. 이념	0.131***	0.023***	0.138***	0.080***	0.076***	0.059***	0.091***	0.051***	0.018***	-0.022***	-0.066***	0.149***	1						
14. 연령	-0.230***	0.017***	-0.052***	-0.014***	0.013***	0.002	0.008	0.020***	-0.082***	-0.020***	0.043***	0.045***	-0.068***	1					
15. 교육	0.227***	0.013***	0.024***	0.040***	0.042***	0.066***	0.034***	0.038***	0.055***	0.057***	-0.190***	-0.006	0.066***	-0.185***	1				
16. 소득	0.258***	-0.035***	0.039***	-0.011***	0.114***	0.122***	0.089***	0.051***	0.040***	0.125***	-0.275***	0.027***	0.047***	-0.158***	0.204***	1			
17. 거주기간	-0.088***	-0.029***	-0.019***	-0.040***	0.049***	0.020***	0.030***	0.035***	-0.058***	0.007	-0.022***	0.059***	-0.006	0.547***	-0.101***	-0.037***	1		

주 1) *p < 0.1, **p < 0.05, ***p < 0.01
 주 2) 거주기간과 행복 간의 관계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단순 상관관계분석은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s)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중회귀분석에서의 계수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지은(李知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시민참여, 삶의 질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에 관한 주관적 인식분석”(2013)이 있다(jieunlee1212@gmail.com).
 강민성(姜敏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커뮤니티, 행복 등이다(runettes@gmail.com).
 이승중(李勝鍾):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89).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도시 및 지방행정, 시민참여, 정부신뢰 등이며, 「시민참여론」(2011), 「국민행복과 정부 3.0」(2013), 「지방자치론」(2014), 「지방자치의 쟁점」(2014, 편저)등의 저서가 있다(slee@snu.ac.kr).

Abstract

The Effects of Urban Risk Perception on Happiness: The Case of Seoul Citizens

Lee, JiEun
Kang, MinSung
Lee, SeungJong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urban risk perception on happiness. We use data from the 2012 Seoul Survey's Urban Policy Index Surve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risk perception and happiness, and evidence verifies that Seoul citizens' urban risk percep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nfluence on their happiness. To summariz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perceptions of 1) environmental risks, 2) social risks, and 3) technological risks – types of urban risk perception – increase, Seoul citizens' happiness declines. Second, in terms of the degree of negative influence that risk perception has on happiness, technological risks have the greatest impact and social risks the least. By analyzing risk, a de-motivator of happiness, this paper provides a meaningful public policy implication: the government should augment its investments in security and establish a safe environment in order to enhance citizens' happiness.

Key Words: urban risk, security, happiness